



일반부문 우수작

미실의 탄생

MBC 월화 드라마 <선덕여왕>의 미실을 통해 본
한국 드라마 악역의 계보

김창훈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는 인간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경험이란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이다.”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사건이란 우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무언가를 의미 있게 해석하고 경험과 추억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사건을 마주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이다. 이것이 인생살이에서 정신력이 중요하고 스토리 속에서 캐릭터의 성격이 중요한 이유다. 스토리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인물이 배제된 사건은 자체적으로는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그 사건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는 이유는 대부분, 결국 등장인물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다. 강렬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가 있을 때 사람들은 결말을 알면서도 이야기에 열광한다.

요즘 한국 드라마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이른바 ‘매력적인 악역’들은 이러한 캐릭터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 웬만한 이야기 속에서 악역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예약해두고 있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해도 악역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물의 최후가 비교적 빠른 상황인데도 그 인물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부여하고 큰 인기를 끄는 드라마가 점점 늘고 있다.

지난 1년을 통틀어 가장 화제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MBC 월화 드라마 <선덕여왕>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선덕여왕>을 보면서 왕위를 놓고 벌어지는 권력 쟁탈전의 승자를 궁금해한 사람은 없었다. 덕만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드라마는 제목에서부터 이 결론을 그냥 공개해버렸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선덕여왕>의 힘은 덕만의 성공 스토리보다도 결국 패배자가 된 미실의 캐릭터에서 나온 것이었다. 미실은 악역이며 패배자이지만 드라마의 성공을 견인한 실질적 주인공이었다. 이와 같은 캐릭터는 원래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보기 힘든 캐릭터였지만 최근에는 꽤 자주 등장하며 대부분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기 위한 다소 기능적인 조연에 머물렀던 전통적 악역과 달리 새롭게 등장한 악역들은 드라마 내에서 충분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는다. 좀 더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직조된 이들 캐릭터는 기존 악역들뿐 아니라 주인공들과도 차별성을 가지면서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미실이 탄생하기까지 1: 사회 통념의 진화

대중매체 속 캐릭터는 시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악역 캐릭터가 정형화 전략에서 입체화 전략의 대상으로 바뀌며 조연의 자리까지도 박차

고 나와 실질적 주인공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중의 윤리관이 변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운명론적’인 세계관의 변화이다. 한국 드라마에서 전통적으로 스토리의 목표로 설정되는 것은 흔히 부, 사랑, 명예, 권력 등을 획득하는 것이며, 캐릭터들은 그 시합의 선수들이다. 거기에서 주로 승리해온 선한 주인공들은 대략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근면 성실한 태도, 밝고 긍정적인 성격 등. 그러나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과 무관하게 이타적이고 윤리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동선이야말로 주인공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반대로 악역들은 언제나 자기 본위의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에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한 주인공들이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묘사된다고 해도, 이는 시청자들에게 주인공 캐릭터 자체를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악역과 대비되는 건강하고 옳은 삶의 방식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크다. 이렇게 자기 본위성이 떨어지는데도 결국 특유의 재능과 도덕성을 인정받아 사랑과 부를 획득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연이 자주 개입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드라마 전체를 운명론적이고 결과론적으로 만들어버리곤 한다. 한국 드라마에 유독 ‘출생의 비밀’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실감 없는 우연의 연속에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원래 태생이 그렇다’는 벗어날 수 없는 꼬리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명에 대한 순응보다는 경쟁 사회에서의 쟁취가 더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자 시청자들의 기호도 달라졌다. 드라마뿐 아니라 각종 자기계발서나 가요의 제목에서도 ‘나쁜 남자’, ‘나쁜 여자’라는 표현은 이제 옛날과 사뭇 다르게 쓰인다. 현대적 용법에서 ‘나쁘다’는 형용사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고 당당하며 유능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이 선한 주인공보다도 더 열광하는 드라마의 악역들은 바로 ‘나쁘다’의 현대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직조된 이들이다. 이들은 일면적으로만 묘사되었던 ‘나쁜’ 행위들 속에 존재하는 아이러니를 끌어내면서 드라마에 역동성과 섬세함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아이러니로 가득 찬 현실을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공감대를 끌어낸다.

<선덕여왕>의 미실은 태생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다. 미실은 신라의 실권을 쥐고 있고 실질적 권력자가 될 만한 지략과 카리스마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명목상의 왕만큼은 될 수가 없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태생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온갖 지략을 펼치는 캐릭터는 시청자들에게 욕을 먹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관례였다. 시청자들에게 욕을 먹고 최종적으로는 스토리 내에서도 별을 받음으로써 ‘권선징악’의 교훈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러나 미실이 보여주는 뛰어난 능력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미실의 꿈이 ‘되지 않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신라의 체제가 후진적이라고 느끼게 만든다. 미실은 ‘되어야 마땅한’, 그러나 ‘되지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또 거의 가질 뻔함으로써 무한경쟁 시대에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철인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악역은 사람들이 턱없이 모자라는 자기 본위성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성공하게 되는 선한 주인공들의 세계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미실이 탄생하기까지 2: 미실, 정난정과 장준혁을 뒤섞은 매력

미실처럼 악역이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한 사례는 <선덕여왕>이 처음은 아니다. 미실의 캐릭터는 2001년에 큰 인기를 끌며 연장 방송을 거듭했던

SBS 월화 드라마 <여인천하>의 정난정과 2007년에 역시 신드롬을 일으키며 화려한 막을 내렸던 MBC 월화 드라마 <하얀 거탑>의 장준혁을 섞어놓은 것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

<여인천하>의 정난정은 스스로의 지략으로 비천한 신분을 벗어나려는 인물로, 시청자들에게 그 놀라운 능력과 카리스마를 성공적으로 보여준 악역이었다.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개인적 욕심의 확장이 지나치게 묘사되었고, 무엇보다 애초부터 정난정의 존재감을 기존 드라마들의 공식인 ‘출생의 비밀’(정난정은 사실 억울하게 모함당한 양반 집안의 여식이었다는 설정)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에 걸맞은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다. 정난정에게는 개인적 매력 외에 시청자들이 두루 공감할 만한 어떤 철학이나 카타르시스가 부재했다. 이렇게 정난정 개인의 매우 특정한 상황에만 매몰된 탓에 <여인천하>는 다양한 시청자층에 어필하지는 못했고,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가장 쉬웠을 비슷한 연령대의 주부들에게 편향된 인기를 얻었다.

<하얀 거탑>의 장준혁은 현대극의 주인공답게 결국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외형적으로는 달성하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불치병과 인생무상의 쓸쓸함을 안고 최후를 맞는 안티 히어로였다. 부도덕적으로 보이는 여러 행동에도 불구하고 장준혁이 그토록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분 상승을 향한 야심이 <여인천하>의 정난정과 달리 대중에게 어필할 만큼 보편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최도영을 향해 ‘너처럼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놈은 내 심정을 모른다’고 말하던 장준혁을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쓸쓸하게 묘사하는 데 성공적이었던 <하얀 거탑>은 그래서 남성층과 젊은층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었다.

<선덕여왕>의 미실은 두 드라마의 주인공이 가진 강점이 혼합된 캐릭

터이다. <선덕여왕>은 미실에게 정난정이 보여주었던 여성적 매력과 장준혁이 보여주었던 남성적 카리스마를 모두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으로 매우 큰 존재감을 완성했다. 또한 아들까지 버려야 했던 상황을 씁쓸하게 그렸다는 점에서는 <하얀 거탑>의 양면적 조명을 닮아 있으면서, 결국 물리적으로는 태생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인천하>가 의도했던 장렬한 고전적 비극의 미학도 살리고 있다.

그러나 두 캐릭터를 넘어서 미실만이 보여주는 진일보한 매력이야말로 <선덕여왕>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미실은 개인적 야심도 투철하지만 그 야심이 신라를 향한 애정과 통치관에 철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 그 애정과 통치관이 모두가 동의할 만한 것인가와는 별개로 - 정난정은 물론 장준혁보다도 더 철학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는 캐릭터이다. 이러한 철학적 완결성은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선한 역할에만 허락되어왔던 부분이다. 정난정과 장준혁은 자신들의 행동이 생존 본능상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캐릭터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여줄 수 없었지만, 미실은 이들과 달리 뜨거운 본능보다 냉정한 철학으로 움직이는 캐릭터였다. 자신만의 세계관에 굳건히 뿌리를 두고 있는 철학으로 인해 미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경외의 대상으로 그려질 수 있었다.

미실의 철학적 완결성은 단지 미실의 캐릭터뿐 아니라 다른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효과도 낳았다. <하얀 거탑>은 장준혁 중심의 모노 드라마로서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인간적 가련함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최도영과 같은 캐릭터들을 허수아비처럼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보편적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최도영이 장준혁과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되기보다는 ‘입바른 소리’나 하는 캐릭터로 주변화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선덕여왕>에서 미실의 투쟁 상대인 덕만은 최도영에 비하면

상당한 진정성과 존재감을 부여받았다. 이는 미실과 덕만의 상이한 국가 통치철학이 그 나름대로 대등한 경쟁을 펼칠 만하게끔 균형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소홀히 그려졌다면 <선덕여왕>에서 덕만의 캐릭터는 크게 약화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덕만이 가진 ‘출생의 비밀’에 기댄 싱거운 드라마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정난정, 장준혁, 미실, 그리고 그 다음은?

새로운 악역들은 한국 드라마에 매우 신선한 재미를 주고 있다. 캐릭터의 입체화는 좀 더 풍부한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단순한 재미뿐 아니라 작품성을 향상시키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정난정, 장준혁, 미실 등이 보여준 캐릭터 너머에 더 새로운 악역도 존재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있을 것이다. 앞에서 한 번 언급했듯이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부, 사랑, 명예, 권력 등의 목표를 놓고 벌이는 시합처럼 진행된다. 캐릭터들은 악하든 선하든 그 시합의 선수들이다. 정난정, 장준혁, 미실도 모두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은 기존의 선한 주인공과도, 전형적인 악역들과도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합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똑같았다. 같은 목표를 두고 다른 방식으로 달려가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참신했던 만큼, 이제는 아예 다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도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뛰는 인물들도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주겠지만 남들과 전혀 다른 욕망을 가진 인물들이 주는 재미와 카타르시스는 그보다 더 클 것이다.